

게시판



요가·한지공예 무료체험 서울 조계사는 11월 22일과 24일 각각 요가와 한지공예 무료체험 행사를 마련한다(사진). 프로그램별로 각각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12월부터 3개월간 계속되는 조계사 아카데미의 사진 체험 코너다. (02)725-2114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완주 송광사는 11월 12-13일 양일간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63)243-8091

밀각심인당 바자회 진각종 밀각심인당은 11월 13일 1시부터 심인당 마당에서 한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연다. (02)2292-3252

청소년자원봉사상 후보 접수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과 부산일보가 11월 20일까지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051)898-2672

무료 한글교육 부산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로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와 프로그램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함께 모집하고 있다. (051)628-6737

경주문화기행 경지 신라문화원은 11월 13일 동남산 일대를 돌아보는 '11월 경주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연구소장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기행의 참가비는 1만 5000원. (054)774-1950

20면 상식 퍼즐 정답

오	상	고	절		
미			연	좌	계
자	산	체			반
	대				사
	눌				심
	이	이	계	이	검
				남	대
					문



현재 국화축제를 열고 있는 진도 쟁계사. 국화향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다. 넉넉한 가을, 국화향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진=이준엽 기자

향에 취하고 색에 반하다

전국서 열리는 국화축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서정주 작 '국화옆에서')

한국의 '대표시'라고 불리는 '국화옆에서'. 이 시를 읽기만 해도 형형색색 피어난 국화가 떠오른다. 가을의 꽃 국화를 볼 수 있는



아치모양 국화로 장식된 쟁계사 일주문.



국화와 조화를 이룬 미당문화기념관.

는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국화를 보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국화로 부처님세상 장엄한 진도 쟁계사**
진도 쟁계사(주지 진현)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국화가 부처님세상을 장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찰산 조인에서 만난 일주문도 국화로 장식된 아치문을 통해야 지날 수 있다. 꽃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극락세계를 향한 듯 마음과 몸이 모두 흥겹다.

경내에 접어들면 크고 작은 수천송이의 국화가 다양한 모양을 뽐낸다. 종각 옆, 대국으로 조성된 일원상 모양의 국화를 접하면 '내 마음도 본래 저렇게 둥글었음'을 느끼게 된다.

대웅전 뒀 방에 서면 아자기하한 꽃장식이 화려하면서도 엄숙하기가 마치 영산회상에 있는 듯하다. 도랑 내에 은은하게 풍기는 국화향기는 어느 향내음 못지않다. 법당 입구 양편에 서있는 국화꽃 5층탑은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탑'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쟁계사 국화축제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진다. (061)542-1165

●**100억송이 국화꽃에 취하는 고창국화축제**
'국화옆에서'를 쓴 미당 서정주 선생이 태어난 전북 고창. 선운사 동백만공이나 아름다운 국화 100억송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창국화축제다.

미당 서정주 선생 묘소 인근 4만 여평에 조성된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고창국화축제는 서해와 변산반도가 내려다보이는 꽃밭에서 국화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행사다. 뿐만 아니라 미당의 대표적 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미당문화기념관이 국화축제장 바로 앞에 있으며,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선운사도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선운사, 미당사비, 고인돌유적지, 동학기포지, 모양성, 동리 신재호 고택 등을 돌아보는 문화순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축제는 11월 27일까지. (063)561-0151

●**특성화된 국화축제도 많다** 두 곳의 축제 외에도 각 지역이나 시설의 특성을 살린 국화축제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 아산 세계꽃식물원(041-544-0746)은 12월 10일까지 '세계국화축제'를 진행한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02-500-7114)의 '국화작품전시회'와 대전공돌이랜드(042-862-4000)의 '국화대축제'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제주한림공원(064-796-0001)에서는 11월 20일까지 '한림공원 국화축제'가 진행된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유머·재치 넘치는 좌충우돌 야채도둑 추격전

윌레스와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 감독: 닉 파크 목소리: 피터 달리스 랍프 파인즈 장르: 애니메이션 상영시간: 85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거대토끼 출현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화려해진 불거리로 무장한 애니메이션 '윌레스와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도 그대로 살아나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우리나라 어린이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행동과 강아지 '윌레스'와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는 사색파 아저씨 '그로밋'의 환상의 콤플렉스라는 중심 설정의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최첨단 발명품으로 무장하고 야채를 훔쳐 먹는 토끼로부터 마을의 보안을 담당하는 최강 콤플렉스 윌레스와 그로밋. 곧 있으면 열릴 마을 최대의 축제 '슈퍼 야채 선발대회'로 인해 이들의 토끼 체포 업무는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마을의 야채를 모두 먹어 치우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파헤쳐진 야채밭, 거대한 발자국, 무너진 담장, 무시무시한 침입자

의 흔적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특수 요원 윌레스와 그로밋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이 '거대 토끼'란 사실을 밝혀낸다. 과연 최강 콤플렉스 윌레스와 그로밋은 이 엄청난 놈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인가? 클레이 애니메이션(점도 인형 영화)을 통해 인간과 가장 흡사한 표정을 그려낸 영화 '윌레스와 그로밋'. 영화 '태권V' 만큼의 흥분된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하늘과 바다, 경계는 어디인고

전혁림 화백 '구십, 아직은 젊다'展

91세 노화백이 올 한해 작업한 신작을 들고 찾아왔다. 한국적 색채와가 전혁림 화백의 신작전 '구십, 아직은 젊다'가 11월 12일~12월 18일 기흥 이영미술관에서 열린다.

12일 오후 3시 정영만의 남해안별신굿을 시작으로 개막하는 이번 전시에는 1년 동안 전 화백이 밤낮없이 작업한 400여점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이영미술관에서 세 번째 열리는 전혁림 화백의 전시회에는 320개의 목기 소반에 그린 '새 만다라(曼荼羅)'를 비롯해 1000호가 넘는 대작 '기둥사이로 보이는 통영항' '한려수도' 등이 전시된다. 이밖에 40여점의 수채화와 목기·도자 그림 등도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 민화에 뿌리를 둔 전혁림 화백의 그림은 맑은 남빛 코발트블루를 주조로 통영의 하늘과 바다를 닮아 푸르다. 거기에 붉고 푸른 원형의 도형들은 민화에서 차용했다. (031)213-8223



전혁림 작 '새 만다라'.

김지연 기자

한지에 담은 탄자니아인 삶과 풍광

이호신 화백 '검은 꽃 향기'

한국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문화를 만나자. 한양대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06년 1월 30일까지 '탄자니아 문화 특별전'을 기획전시실 I II에서 개최한다.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기획된 아프리카 탄자니아 전시다.

탄자니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 그림, 사진 등이 전시된다. 첫 번째 주제 '이시밀라 아슬리안 문화'에서는 탄자니아의 이시밀라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를, 두 번째 주제 '킬리만자로의 마사이족'에서는 마사이족의 생활상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 '검은 꽃 향기-한지에 담은 탄자니아'에서는 한국화가 이호신씨의 한지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호신 작가는 지난 2000년 탄자니아를 방문해 3개월간 체류하며 탄자니아의 여러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들은 탄자니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현지 예술계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전시된 작품과 미공개작품을 모아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02)2220-1396



이호신 작 '탄자니아'.

김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p>BBS 7월 14:05 낭만라디오 8월 11:05 아름다운 초대 9월 10:05 BBS신생방송 10월 09:05 행복한 미소 11월 21:05 영화음악실 12월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3월 07:05 사랑의 정경다리</p>	<p>Bn 7월 21:10 한국의 명찰 8월 02:40 불교TV스페셜 9월 15:50 열린마당 10월 19:30 TV법회 11월 08:20 산중대담 12월 07:30 조선불교탄일사 13월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p>
---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11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곡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풍요, 중국·타베트·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영맹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13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영맹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희담석 눈썹질팩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간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현대인의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 '희담석 눈썹질팩'이 나왔다. 눈썹질팩은 눈의 피로를 자주 느낄 때나 머리가 무거울 때, 공부할 때 사용하면 눈의 피로를 쉽게 풀 수 있다. 평소에는 냉장고의 냉장실에 넣었다 사용하면 좋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부도우미'가 될 수 있을 듯. 가격은 1만 6500원.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